

KISA & KISA

야구동호회 '데굴데굴'

금메달의 흥분 그대로

얼마 전 폐막된 베이징 올림픽. 수많은 화제를 낳긴 이번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으로 야구를 꼽을 것이다. 모든 종목이 그러했지만, 우리나라 야구팀의 한계임 한계임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수식어가 그렇게나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특정 종목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면 으레 사회적인 실천으로 연결되기 마련. KISA에도 드디어 야구동호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가칭은 '데굴데굴'. 창단준비위원장(?)을 만나 창단준비 상황을 생중계해 본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취재팀 / 창단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창단식은 언제인가.

준비위원장 /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9월 중순 가입희원을 대상으로 첫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회장 선출, 동호회 결성일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칠 것이다. 벌써부터 즐겁다.

취재팀 / 동호회 결성은 이번 올림픽 국가대표 야구팀의 선전 때문인가.

준비위원장 / 사실 지난 11월부터 정보통신사회인야구단이 창단되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야구대표팀의 선전이 실천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올림픽 야구경기를 보면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 아닌가.

취재팀 / 야구팀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유경험자가 필수인데

준비위원장 /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중학교 시절 야구 명문 학교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연구원을 멤버로 영입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선, 애정을 갖고 시작하는 게 목표다.

취재팀 / 팀을 창단하면 경기를 해야 한다.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또 어떤 팀과 시합을 해 나갈 생각인가.

준비위원장 / 9월 모임이 시작되면 강변야구장 등지에서 연습하고, 때가 되면 타 기관들과의 시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10월 중 '데굴데굴'의 첫 번째 시합이 잡혀있다. 또 사회인 야구리그(3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시합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취재팀 / 시합을 하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위원장 / 물론이다. 하지만 우선 최선을 다할 생각이 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꼴찌팀들이 잘해 나가고 있다. 늦었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 물론 진흥원 식구들이 응원해 준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다.

취재팀 /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성회원도 가입할 수 있나.

준비위원장 /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는 여성선수도 많다. 야구가 좋아서, 한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대환영이다. **S**